

김장페스티벌도 대박 조짐

임실N치즈축제 성공 이어
참가희망 문의전화 쇄도
내달 11~12일 테마파크 일원

2017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축제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임실군이 오는 11월, 두 번째로 열리는 김장페스티벌의 군불을 지피며 그 열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군은 다가오는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임실테마파크에서 개최되는 제2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을 앞두고, 사전신청자가 물리면서 성공축제를 조심히 살펴보고 있다.



임실군이 11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임실테마파크에서 제2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축제 자료사진.

17일 군에 따르면 올해 김장 페스티벌은 2만kg 목표로 진행되며, 1만 5000kg 상당이 신청 접수된 가운데 이달 31일까지 선착순 접수 예정이다. 현재 참가를 희망하는 주부들의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마감기간까지 참가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군은 이날 김치페스티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절임배추 작부반등 농가를 대상으로 김치 명인을 초빙, 일괄적인 배추 절임방법에 대한 교육 등과 함께 행사 세부운영 계획 등을 점검하며, 만족도 높은 축제를 페스티벌을 열자는 데 중점을

뒀다. 김장 페스티벌의 인기는 지난해 도내에서 처음 개최해 큰 성과를 이룬 제 1회 김장페스티벌의 입소문 효과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실시한 첫 번째 김장 페스티벌은 지역민은 물론 김장에 대한 부담이 큰 전주 등 인근 도시민들의 참여열기가 매우 높아, 큰 호평을 받았다.

군은 올해 축제를 위해 일찌감치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김장에서 제일 중요한 배추 식재 전부터 배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전문가를 초빙해 배추품종별 특성과 식재방법,

병충해 관리요령 등 재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하고 체계적인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장페스티벌은 임실연양념식품육성사업 일환으로 지역농가가 직접 재배한 고춧가루와 절임배추, 무, 생강, 양파 등 농산물을 사용한다.

심민 군수는 "작년에 처음 열린 김장페스티벌에 기대 이상의 참가자가 몰려 올해는 물량과 참가인원 수를 대폭 늘렸다"며 "올해 김장페스티벌은 다양한 즐길거리 등도 마련돼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신개념 관광휴양촌 '실랜드' 건설 순항

순창군 2019년까지 80억원 투입... 휴식·치유공간 마련

순창군이 휴식과 치유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신개념 관광휴양촌인 실랜드' 사업을 속도 있게 추진하면서 건강장수연구소 일원 하드웨어와 힐링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실(SHIL: Sunchang Health Institute Longevity)랜드 조성 사업은 인계면 인덕로 427-128번지 건강장수연구소 일원을 휴식과 치유를 융합한 대표 관광지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2019년까지 80억원을 투자해 다양한 치유관련 하드웨어와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이다.

군은 우선 지난해 워터공원과, 무궁화 동산, 수변공원 등 주변 경관조성에 착수한 상태다. 수국과 산수국 1300주를 비롯한 다양한 치유식물을 식재했으며 시냇물, 세족장, 음용시설 등을 갖춘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있다. 또 명상을 통한 치유를 위해 숲속 힐링 명상관과 실랜드에서 머물며 체

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목조형 황토방갈로 15동을 신축하는 사업에도 착공한 상태다. 2018년에는 주차시설과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힐링 스파시설은 2019년 착공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실랜드 주요 공간에는 이미 건강장수연구소, 건강장수체험과학관, 식문화실습관, 의농업체험관이 이미 운영 중에 있어 사업 완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드웨어 투자가 속도를 내면서 건강장수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힐링교육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도 전국적인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해 (사)한국당뇨협회 태초먹거리학교와 실랜드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기존 노후준비 교육, 당뇨학교, 식문화 도농교류, 군민 힐링 프로그램 등을 내실화해

실랜드 운영과 점포에 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다. 또 풀무원, 아모레퍼시픽 등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한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면서 예약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다양한 힐링교육 체험하기 위해 순창건강장수연구소를 방문한 인원만 지난해 4천여명에 이른다.

최근에는 군민들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대상성 질환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습관교육도 추진해 효과를 보고 있다. 군은 특히 실랜드를 노후교육 힐링체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후생활 연구기반시설인 '국립노화연구원 설립 및 유치'에도 온 힘을 쏟고 있는 상태다.

황숙주 군수는 "건강장수연구소 일원이 대한민국 치유관광 일번지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하드웨어 구축사업과 함께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병행해 순창군을 건강과 힐링의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흥부제 기간에 지역 내 어려운 가정 지원을 위한 '나눔가족, 알뜰장터' 바자회를 실시한다.

물건사고 이웃돕고 '1석2조'

남원 흥부제기간 나눔가족 알뜰장터 바자회 운영
판매수익금, 장학금·난방물품 지원 등 기부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정덕주 센터장)는 오는 28일~29일 3일간 열리는 흥부제 기간에 지역 내 어려운 가정 지원을 위한 '나눔가족, 알뜰장터' 바자회를 실시한다.

남원요천둔치에서 진행되는 이번행사는 남원시민들의 후원과 기증으로 준비된 물품을 중심으로 생필품과 다문화음식 먹거리(중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등 행사에 참여하는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정덕주센터장은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자원재활용과 나눔의 문화가 이번 행사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몇 년 간 바자회 판매 수익금으로 지역 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을 위한 장학금과 난방물품 지원으로 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올 연말에도 변함없는 나눔을 실천할 것으로 전해진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 치즈요리 전문가 육성 40여명 교육 수료생 배출

임실군이 치즈음식문화 확산과 치즈요리 전문가 육성을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전문인력양성교육이 임실N치즈산업육성에 효과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사)임실치즈음식문화연구회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양식조리반과 임실N치즈요리 창업교육 과정 등 2개 과정의 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4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1차적으로 실시된 양식조리반 과정은 총 12회에 걸쳐 교육이 진행, 20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가운데 이들 중 17명은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최종 4명이 실기시험까지 합격했다.

연구회는 필기시험 합격자 중 실기 시험에 탈락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올해 말까지 전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차 교육은 임실N치즈요리 창업교육 과정으로 지난 9월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14회에 걸쳐 진행, 2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들 인력양성 교육 참가자들은 다양한 실습을 통해 지난 임실N치즈축제 때 다양한 치즈요리를 제공하며, 임실N치즈요리를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데 적극 활동했다.

축제기간 동안 이들은 치즈떡과 치즈 비빔밥, 파스타 등을 즉석에서 판매하는 부스를 운영, 축제장을 찾은 전국의 관광객에게 색다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먹거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안전한국훈련 준비 박차

순창군은 폭설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재난 및 풍수해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성공적인 훈련 추진을 위해 지난 13일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획회의 컨설팅을 실시했다.

기획회의 및 컨설팅을 통해 훈련전문가인 광주 환경공단 정선근위원으로부터 훈련기본계획 및 시나리오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안전한국훈련은 대형 재난 발생 상황을 대비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통합건강지도자 양성

임실군은 '통합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을 11월 9일까지 운영한다.

지역사회 경기 실천을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건지소, 진료소 담당자 및 지역민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임실문화원에서 실시한다.

총 8회에 걸친 교육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운동실천을 유도하고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을 마친 건강지도자는 농한기 활기찬 경로당 체조교실 운영 등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 활동하게 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꾸준한 걷기와 스트레칭 등 운동의 이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참여를 유도해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하세요"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접종 첫날인 지난 16일 보건소, 지소, 진료소를 포함, 40개 보건기관에서 3,000여명이 접종을 마쳤다.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리게 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방지하고자 유료접종은 23일부터 실시한다.(접종비 8,600원).

무료접종 대상자는 남원시민 중 만 60세~64세·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참전용사·다문화가정·한부모 가정, 만 65세 이상 어르신(전국), 생후 6개월~59개월 이하 어린이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판주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